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심재휘 대진대학교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한 모색
- IV. 교재에 수록된 문학텍스트 양상
- V. 맺음말

I. 머리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그리고 문학교육이 그것이다. 문학 작품은 당연히 해당국가의 언어로 되어있으므로 언어를 습득하는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작품 속에는 해당국가의 정신문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육과 학습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운문과 산문 등을 학습하면서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뒤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문학텍스트 활용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더불어 효과적인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제안해 보려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접목되는 문학교육은 모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과는 다르므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의 비중은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물론,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학텍스트는 일차적으로는 언어교육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속성상 교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언어교육과 더불어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문학텍스트는 언어·

문화·문학 중 어디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를 교사는 고민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교육방법론 탐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론에서는 우선,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 모색하도록 한다. 문학텍스트가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텍스트를 선정해야 하는가, 선정된 텍스트는 어떻게 단계별로 구성해야 하는가 등에 관하여 고민해보도록 한다. 더불어,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텍스트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사용되는 교재와 이전의 교재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문학교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피는 일이다. 이는 문학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문학텍스트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교육 현장의 문제인 교육 방법론은 본 연구의 범위에 두지 않기로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90년대 중반,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문학교육의 효율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문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의 필요성 및 효용성, 문학교육의 위계화와 작품 선정에 논의하면서 전개되었다.¹ 이후 한국어교육 전공자와 한국어 교사들은 교육 현장과 관련된 실질적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론적 측면과 교육 현장에 연관된 실제적 측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여탁(1999)은 한국어교육에 포함된 문학교육의 위상과 가치를 언급하면

1 황인교(2006), 「문학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281쪽.

서 문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효용성을 주장하며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활용은 초급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 이 외에도 그는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한국어교육에서의 현대문학 정전연구」(2002)는 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연구에서 현대문학 정전 목록을 제안하였다. 현장 조사 작업을 통해 축적된 이 목록은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황인교(2001)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교수 현장에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문학 교수를 도모할 때라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 필요성을 일찍이 주장하였다. 김대행(2000) 역시, ‘문학은 생활 속에 성장하는 것’이므로 문학을 활용한 교육텍스트는 ‘외국어교육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문학은 한국어 능력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학습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도자 과정 연수 프로그램에서 문학교육의 대상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자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신윤경(2008)은 문학텍스트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텍스트 선정 범위를 5~7차 교육과정의 중·고교 교과서 수록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대다수의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론적인 측면의 논의들은 대체로 교육방법론과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황인교나 신윤경의 연구에는 시나 소설을 활용한 문학교육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교육 현장을 고려한 문학교육 연구로는 황인교의 논문(1998)이 앞에 섰다. 이 작업에서 그는 문학수업 및 문학텍스트에 대한 학습자 요구를 분석하였고 시와 소설을 텍스트로 하는 문학교육의 실태를 다루었다. 시 텍스트를 활용한 문학교육방법론으로는 김지연(2001), 정은화(2001), 신주철(2003), 이기성(2009), 오지혜

2 윤여탁(2003-1),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14호 1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등이 있다. 소설의 경우에는 이성희(1999)와 윤영(1999), 그리고 이기성(2003), 백장미(2009), 김해옥(2012)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학 텍스트로서 수필을 다루고 있는 김보경(2002)의 논문 등이 있다.

한편, 문학교육을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언어교육이 병행해야 하는 문화교육으로서 문학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한 연구이다. 이수영(2003)과 오세인(2004), 그리고 최은영(2005)의 논문이 그런 것인데, 고급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재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문화교육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조향록의 연구(2005)이다. 그는 여러 연구에서 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어교육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문학텍스트 등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주장하였다.

이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고급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학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들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문학텍스트를 언어교육의 도구에 국한시키는 것을 우려하였고 문학텍스트를 통한 문화교육 나아가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방법론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어교육 전공자, 혹은 국어학 전공자들의 입장에서 문학텍스트를 탐구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뿐더러 문학텍스트 연구가 교육학이나 국어학 연구의 중심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많은 연구들은 특정 작품이나 특정 장르 중심의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연구자 개인의 교습방안을 소개하는 수준에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주관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고전과 현대문학, 운문과 산문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Ⅲ.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한 모색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텍스트를 얼마나 선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점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내용, 텍스트의 양, 텍스트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내용의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는 일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재를 통해 수업시간에 접하게 되는 문학 작품이 그들의 한국어 능력을 고양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접하는 유일한 한국 문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초·중·고 국어교육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텍스트 선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특정하게 제시된 기준이 아직까지 없으므로 적절한 문학텍스트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에서도 문학교육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체크 목록이 있다. Gillian Lazar(1993)³가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텍스트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는 <문학텍스트 선정을 위한 체크 리스트>에서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유형인 ‘코스의 유형’에는 ① 학습자의 수준 ② 외국어 학습의 이유 ③ 요구되는 외국어의 종류 ④ 코스의 길이와 수업 정도 등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 유형인 ‘학생들의 유형’에는 ① 나이 ② 지적 성숙도 ③ 감정적인 이해도 ④ 흥미와 취미 ⑤ 문화적 배경 ⑥ 언어적인 숙달도 ⑦ 문학적인 배경 등을, 세 번째 유형인 ‘다른 관련 요소들’에는 ① 텍스트의 유용성 ② 텍스트의 길이 ③ 활용·추출 가능성 ④ 교수요목에의 적합성 등을 언급했다.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셈이다. 그는 문학

3 Gillian Lazar, Literature and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48-61 쪽.(이수영(2003), 시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40쪽, 재인용.)

텍스트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첫째, 학생의 수준과 욕구, 둘째, 수업에서의 활용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학이 어떤 측면에서 언어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한 Lazar(1993)의 정리 중에, ① 언어습득에 효과적이다 ② 언어적 인지를 확장시킨다 ③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④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⑤ 다른 나라 문화 이해를 돕는다 ⑥ 실재적이다 ⑦ 학습자들의 해석 능력을 발전시킨다 ⑧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과 ②는 문학텍스트가 당연히 언어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③과 ④는 학생들의 동기부여, 즉 수업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켜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뜻이다. ⑤와 ⑥은 문화교육의 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⑦과 ⑧은 문학교육의 성과를 언급한 것이다. Lazar 역시,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언어교육, 문화교육, 문학교육으로 선명하게 나누었다.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그리고 문학교육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문학텍스트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연구의 선편을 잡은 윤영(1999)은 텍스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① 흥미 ② 문학적 가치 ③ 주제의 보편성 ④ 한국 문화의 특성 ⑤ 학습자 수준 ⑥ 가능한 현대작품 ⑦ 수업시간에 소화할 만한 분량 ⑧ 매체 이용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②와 ④ 정도가 문화 및 문학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대체로 교육 수월성을 중시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문학텍스트 선정과 관련한 연구의 초기 관심사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윤여탁의 논문(2002)은 좀 더 실질적인 면에서의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⁴	
문학사적 가치의 여부	12명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난이도 여부	63명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	58명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	33명
기타	9명

윤여탁의 논문 중에는 문학작품 선정의 중요한 기준을 묻는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한다. 외국어교육에서 언어교육, 즉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앞의 설문 결과가 흥미로운 점은 작품 선정의 기준으로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답한 점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비교적 어렵게 생각하는 문학 작품을 그들의 언어 능력이나 수준에 맞추어 선정해야 한다는 점, 흥미나 동기 유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텍스트를 선정할 때 그것이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느냐가 선정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설문이 이루어진 2000년 전후의 문학텍스트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인식은 윤영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학텍스트가 언어교육과 교실 운영에 도움을 주느냐 여부에 관심이 크다. 그것이 문화와 문학교육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백봉자(2007)가 제안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한

4 본 표의 내용은 앞의 윤여탁(2002) 논문에서 참고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어교사 및 대학원생들에게 400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수강생 50부, 외국어 교사들에게 5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1차로 수집된 186부의 설문지 응답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설문지를 보낸 교육 기관은 국제교육진흥원, 서울대, 연대, 이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외대, 동아대, 신라대, 전남대, 선문대 등이었다. 대학원생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이며, 한국어 교사 지망생은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으로서 한국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로 텍스트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과 이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정도가 특정 작품을 받아들이는 데 적합한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또 학습자의 감각에 맞는 작품인가도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고대소설·민담·전래동화 같은 작품은 학습자의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아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고전작품에는 요즘 사용하지 않는 어휘도 많을 뿐더러 특히 전래 동화는 성인의 정신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로 해당 텍스트가 학습자가 감상할 만한 작품인지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학습자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뜻이다. 문학 작품으로서 향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정서와 거리가 있거나 한국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외국인에게 읽히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비교육적인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르 면에서는 학습자가 접근하기 쉬운 생활문이나 수필문이 좋고 소설과 드라마 역시 실생활 언어를 극적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인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과 감각에 맞는 작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윤여탁의 설문 결과와 부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견해들에도 다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문학 텍스트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문학을 처음이자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문학의 변방에 있는 작품보다는 가능한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텍스트 중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유발하며 감각에도 맞는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전래동화나 민담 같은 작품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이 성인 학습자이지만 고전문학에 해당하는 설화는 그들에게 전통문화를 학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더구나 설화는 이문화 간에도 공통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

는 경우가 많아서 이야기의 구조나 주제 측면에서는 교실 활용도가 높다.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많다는 지적은 현대어에 맞게 편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설화가 주로 초급 교재에 많이 활용되는 것은 바로 교실에 맞게 어휘와 문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텍스트는 굳이 교훈적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언어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근간은 교화보다는 미적 감흥에 있기 때문이다. 언어교육에 적합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알릴 수 있으며, 정서상으로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훈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문학텍스트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문화교육과 관련한 것이다. 고전문학은 물론이거니와 현대문학 텍스트도 시대에 따라 격변해온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고 고유의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일 수록 좋다. 조항록(1998)은 문화교육에 있어서 문학작품의 구체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 황순원의 「소나기」를 통해 한국의 향토적 정서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 1960~70년대 질곡의 사회 현실 속에서의 한국인의 의식 굴절을 각각 학습자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교육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K-컬처의 세계화로 인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전과 다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을 전후하여 각 교육기관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그 결과이다. 새 교재들에 활용되는 문학텍스트의 내용과 역할이 이전과 다르게 바뀐 것은 교실에서의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의 비중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영, 윤여탁, 백봉자의 제안이 대체로 언어교육에 치중해 있다면 이제는 언어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문화교육, 나아가 문학교육까지도 실현할 수 있는 텍스트 선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문학텍스트는 언어교육, 문화교육, 그리고 문학교육을 차례로 지향해야 한다. 물론, 언어교육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안배를 했는가 등과

같이 교육 수월성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더불어 문학텍스트가 문화교육에 효율적인가, 문학교육을 하기에 적합한가 등도 생각해야 한다. 다음에서 제안하는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은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

(1) 텍스트의 지향성과 단계별 비중

① 문학텍스트는 물론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하는 도구이지만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단계에서 언어교육, 문화교육,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②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은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되 단계별로 언어교육(초급)→문화교육(중급)→문학교육(고급)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좋다.

(2) 문학텍스트가 지녀야 하는 네 가지 요소

① 언어의 측면 :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제의 측면 : 한국인의 정신문화, 역사문화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③ 감상의 측면 : 정서적 공감, 느낌의 파악 등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용이해야 한다.

④ 문학양식의 측면 : 문체나 구조의 변화, 문학의식의 변화 등,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단계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단계별로 적합한 문학 장르

① 모든 단계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목적에 맞게 수준과 장르를 조절해야 한다.

② 초급: 다양한 문학 장르를 골고루 소개하되 운문보다는 산문, 현

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 텍스트를 더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언어교육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③ 중급: 운문과 산문의 균형을 맞추되 현대문학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문화교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며 문학교육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④ 고급: 중급에 비해 운문과 현대문학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동시대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학적 소양을 기르도록 수업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교재에 수록된 문학텍스트 양상

이번 장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학텍스트의 양상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특히, 2016년 현재 사용되는 교재와 이전 교재를 비교해 봄으로써 차이를 파악한다. 문학텍스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현재,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교 부설 기관의 교육과정이 대표적이다. 한국어교육 전공 및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사 수급이 안정적인 데다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언어교육을 마치고 희망 전공으로 옮겨가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한국어교육 기관들이 자체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기관에서 통용되는 교재 중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언급한 세 곳의 교재이다. 비교적 기관 운영 기간이 길고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교재가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교재 개편을 통해 교재를 발전시켜 왔으므로 문학텍스트 활용의 변화를 살피기에 적합하다. 세 학교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도표화된 목록은 따로 첨부하기로 한다.

(1) 고려대학교

『한국어1~6』(2004)/ 『재미있는 한국어(1~6)』(2010)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1986년 민족문화연구소 내의 한국어문화연수부로 출발하였다. 2016년 현재, 교육과정은 1년이 4학기 제이며, 한 학기는 10주 과정, 200시간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실력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뉘며 6급 수료 학생에 한하여 7급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살펴볼 교재는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어 1~6』(2004)와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 편찬한 『재미있는 한국어 5~6』(2010)이다. 문학텍스트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1~6』(2004)

- 고전문학 산문(총 3편) : 2급- 설화 1편/ 3급- 설화 1편/ 4급- 설화 1편

② 『재미있는 한국어(1~6)』(2010)

- 현대문학 운문(총 4편) : 5급- 시 4편
- 현대문학 산문(총 3편) : 5급- 수필 1편/ 6급- 소설 2편

『한국어1~6』(2004)는 현재의 『재미있는 한국어(1~6)』(2010)가 나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용된 교재이다. 이 교재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특징은 작품의 수가 타 교육기관의 교재에 비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작품이 모두 설화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화텍스트가 문화교육으로서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형연습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수록되어 있다. 교사에 따라 포괄적인 문화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문화교육 혹은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수록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교재로 개발된 『재미있는 한국어(1~6)』(2010)에서 다소 개선된다. 고급반의 교재(5급~6급)에 현대문학 위주의 문학텍스트가 실렸다. 이전의 교재와 달리 문학교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운문과 산문이 5급과 6급에 나누어 실린 것은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5급의 5과 ‘한국의 시와 수필’에 ‘진달래꽃’(김소월), ‘서시’(윤동주), ‘꽃’(김춘수), ‘승무’(조지훈) 등 네 편의 시와 한 편의 수필 ‘나무’(이양하)가 실려 있다. 그리고 6급의 5과에 두 편의 소설, ‘봄봄’(김유정),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김애란) 등의 일부가 실렸다. 주제와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관련 경험을 상상해보는 는 활동이 이어진다.

구 교재에 비해 새 교재에서 고전문학텍스트가 모두 사라진 것은 문화와 문학교육의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대문학텍스트 역시 소략해서 다소 피상적인 교육이 되기 쉽다. 시 텍스트는 대표성을 띄기는 하지만 일정한 시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쉽고 소설의 경우는 그마저도 논의하기에 무리가 있다. 5급에는 시 텍스트만을, 6급에는 소설 텍스트만을 배치한 것은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문과 산문이 수준 별로 고루 구성되는 것이 좋다.

결국, 고려대학교 교재의 문학텍스트가 현대문학 위주로 구성된 것은 우선은 언어교육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문화교육보다는 문학교육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고전문학에 담긴 전통적인 삶과 사상을 소개하기보다는 동시대의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맛보도록 하는 기획이겠다. 그러나 그마저도 분량이 적어서 문화 및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초급단계에서도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가능하다고 피력한 윤여탁(2003)의 논의를 상기해 볼 때, 고려대학교 교재의 경우는 무엇보다 언어교육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에서 볼 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단계별로 문학텍스트를 고루 선정할 것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준별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세대학교

『한국어1~6』(1994), 『한국어 읽기(1~5)』(1999)/ 『연세 한국어 읽기(1~6)』(20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1959년 연세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규과정은 6단계와 8단계로 구분된다. 6단계는 1급부터 6급까지로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8단계는 1급부터 8급까지 구성되며 약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데 이 과정은 행정적으로는 존재하나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한 학기는 10주이며, 1일 4시간씩 200시간 동안 진행된다. 6급 수료 후에는 최고급 한국어 과정에 진급할 수 있다. 최고급 과정은 10주 과정이나 하루 2시간만 수업한다. 여기에서 살펴볼 교재는 『한국어』(1994)와 『한국어 읽기』(1999), 『연세 한국어 읽기』(2010)이다. 현재 사용 중인 통합교재 『연세 한국어』(2013)에는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연세 한국어 읽기』(2010)에 다수의 문학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① 『한국어(1~6)』(1994)

- 고전문학 운문(총 1편) : 6급- 시조 1편
- 고전문학 산문(총 1편) : 6급- 고소설 1편
- 현대문학 운문(총 5편) : 6급- 시 5편

『한국어 읽기(1~5)』(1999)

- 고전문학 운문(총 5편) : 4급- 시조 5편
- 고전문학 산문(총 13편) : 2급- 설화 4편, 고소설 1편/ 3급- 판소리소설 1편(회곡각색)/ 4급- 설화 1편/ 5급- 설화 6편

- 현대문학 운문(총 5편) : 5급- 시 5편
- 현대문학 산문(총 11편) : 3급- 소설 1편/ 4급- 소설 1편/ 5급- 소설 2편, 수필- 4편, 기행문- 2편, 평론- 1편

② 『연세 한국어 읽기(1~6)』(2010)

- 고전문학 산문(총 2편) : 3급- 설화 2편
- 현대문학 운문(총 14편) : 4급- 시 3편/ 5급- 시 3편, 노랫말 2편 / 6급- 시 5편, 노랫말 1편
- 현대문학 산문(총 21편) : 3급- 소설 1편, 수필- 5편/ 4급- 수필- 6편/ 5급- 소설 1편, 수필- 6편/ 6급- 소설 2편

연세대학교는 기관의 운영 기간이 길어서인지 일찍부터 문학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타 기관에 비해 많았다. 구 교재 『한국어』(1994)를 살펴보면 6급 과정에만 문학텍스트가 실렸고 대부분 운문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문학텍스트로는 51과(고향)에 노랫말인 ‘고향의 봄’(이원수), ‘가고파’(이은상) 두 작품과 정지용의 시 ‘향수’의 일부분이, 59과(역사 속의 인물: 소월 김정식)에 김소월의 시 ‘진달래 꽃’과 ‘먼 훗날’ 전문이 실렸다. 고전문학은 54과(사랑)에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 요약본이, 56과(우정)에 시조인 오우가(윤선도)가 수록되었다. 해설문을 실었다는 것도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구 교재인 『한국어 읽기』(1999)에는 꽤 많은 작품이 수록되었다. 초급(2급)과 중급(3~4급) 교재에는 현대어 풀이로 된 설화와 시조가 대부분이다. 고급(5~6급)에는 기행문을 포함한 수필(6), 현대소설(2), 현대시(5) 등이 설화 여섯 편과 함께 실려 있다. 텍스트들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단위별 주제에 맞게 선정되었다.

구 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특징은 고전문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로 크다는 것이다. 어휘와 문형을 수업에 맞게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 선정 배경이겠다. 또한 현대문학도 문학성이나 대표성보다는 교육 수월성이 중시되었다. 모두가 단원별 주제에 맞게 가려 뽑다보니 텍스트의 문학적 가치보다는 텍스트가 담고 있는 화제가 기준이 된 듯하다. 현대소설로는 이청준의 ‘서편제’, ‘매잡이’ 두 편이, 현대시로는 ‘알 수 없어요’(한용운), ‘가는 길’(김소월), ‘추천사’(서정주), ‘풀’(김수영), ‘겨울바다’(김남조) 등이 수록되었다. 모두 5급에 수록되어 있어서 문학교육을 의도한듯하지만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시대별 안배도 되지 않았다. ‘알 수 없어요’, ‘추천사’, ‘풀’ 등은 한국 학생들도 감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교재 『연세 한국어 읽기』(2010)에는 3급에서 6급에 걸쳐 상당한 문학텍스트가 수록이 되어 있다. 이전 교재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던 고전문학텍스트가 대부분 사라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급에 문학텍스트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초급의 언어교육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현대문학 운문과 산문을 중급 이상에 배치한 것은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텍스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휘 연습’과 ‘내용 이해’에 국한되어 있어서 독해 자료로 활용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다만 고급(5~6급) 교재에는 제시된 소설의 다음 내용을 상상해서 써보거나(5급, 10과) 관련한 시를 써보는(6급, 8과) 활동이 있고 ‘이야기해 봅시다’(5~6급)라는 항목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감상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화나 문학수업보다는 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고급에서 소설의 전문을 실은 것은 의욕적이지만 시나 소설 텍스트에 해설을 함께 싣고 있어서 감상의 폭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문화 및 문학교육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교재가 개편이 된다면 수록된 문학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3장의 기준과 관련해 볼 때, 초급과

중급 교재에 더 많은 문학텍스트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문학텍스트를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3)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1~5)』(1999)/『이화한국어(1~6)』(2010)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62년 처음 설립되어 1988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집중과정이 개설되었다. 집중과정은 4학기제이며 한 학기는 10주이다. 주당 20시수이며 1급에서 6급까지 개설되어 있다. 교재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편찬한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1999)를 사용했고 지금은 새로운 교재인 『이화한국어(1~6)』(2010)를 쓰고 있다.

① 『말이 트이는 한국어(1~5)』(1999)

- 고전문학 산문(총 11편) : 3급- 설화 1편/ 4급- 설화 9편, 판소리 계 소설 1편
- 현대문학 운문(총 1편) : 5급- 시 1편
- 현대문학 산문(총 1편) : 5급- 수필 1편

② 『이화한국어(1~6)』(2010)

- 고전문학 운문(총 2편) : 1급- 민요 1편, 판소리- 1편
- 고전문학 산문(총 7편) : 1급- 구전 동화 3편/ 2급- 구전 동화 3편, 판소리 소설 1편
- 현대문학 운문(총 27편) : 1급- 시 5편/ 2급- 시 6편/ 3급- 시 7편/ 4급- 시 7편/ 5급- 시 2편
- 현대문학 산문(총 14편) : 2급- 수필 1편/ 3급- 소설 1편, 수필 5편/ 4급- 소설 2편, 수필 1편/ 5급- 수필 4편/ 6급- 소설 1편

우선, 구 교재를 보면 설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어휘와 문형을 편집할 수 있는 고전문학의 장점이 작용했겠다. 그럼에도 초급에는 문학텍스트를 수록하지 않고 중급부터 실었다. 현대문학텍스트는 고급인 5급에 김춘수의 ‘꽃’과 피천득의 수필 ‘인연’ 두 편밖에 없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단원의 주제와 문학텍스트의 내용을 연계했다면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단원별 주제와 무관하다. 설화텍스트는 ‘이야기 주머니’라는 항목 속에서 토론을 유도하는 자료로 기능한다. 3급에 집중되어 있는 설화는 모두가 말하기·읽기·쓰기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을 의도하지 않은 것이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개정된 교재, 『이화한국어(1~6)』(2010)를 살펴보면 문학텍스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과 현대문, 운문과 산문이 상당수가 수록되었다. 게다가 1급에서 6급까지 단계마다 고루 문학텍스트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현대문학의 비중이 커진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전 문학의 경우, 주로 우화의 일종인 구전 동화에 편중되어 있고 운문은 아리랑을 포함한 두 편에 불과하다. 구 교재와 마찬가지로 말하기·읽기·쓰기 등 수업 원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고전문학 텍스트가 초급의 언어교육에 효과적이고 교육 수월성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설화 및 전통 문학을 소개하여 문화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현대문학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은 문화교육, 나아가 문학교육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단계별 수준에 맞는 운문(시)과 산문(동화, 수필, 극본, 소설)이 균형 있게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상과 토론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문화 및 문학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문학 맛보기’(1급-2급), ‘문학 산책’(3급), ‘문학 기행’(4급)이라는 항목이 1급에서 4급까지 매 단원마다 배치되어 있다. 또한, 5급의 마지막 단락 ‘예술과 문학’에서 시 텍스트 읽고 모방해보기를, 6급의 마지막 단락 ‘창작과 예술’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읽고 비평문을

쓰거나 각색하기를 지도하고 있다. 언어교육을 바탕으로 하되 문화교육과 문학교육까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나치게 70년대 이후의 작품들에 편중되어 있어서 한국현대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초급이나 중급 단계의 경우, 현재 수록된 동시 위주보다는 성인 시 중에서 수준에 맞는 작품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더욱 바람직하게 문학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세 교육 기관의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우선 문학텍스트의 비중이 한국어교육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교육의 방편이었던 문학텍스트가 일차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문화교육, 나아가 문학교육을 지향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은 그동안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문학텍스트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진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교육의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을 위한 문학텍스트 활용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5. 맺음말

문학텍스트는 언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은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양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언어능력은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수준 높은 상태로 진전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문학텍스트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고 대표적인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문학텍스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문학텍스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의 의도 역

시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단순히 언어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문학텍스트는 문화 및 문학교육의 일환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학텍스트의 선정 기준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교육의 방향이 다소 불투명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물론,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신문화가 내재된 상징임을 염두에 둔다면 문학텍스트는 기호와 정서의 내밀한 관계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선정된 문학텍스트와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은 진일보한 한국어교육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한 모색은 한국어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활발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 역시 한국어교육 현장의 교사와 관련 연구자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2016.07.31. 투고되었으며, 2016.08.08. 심사가 시작되어 2016.09.06.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기본 교재]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4), 『한국어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5~6』, 교보문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4), 『한국어6』,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9), 『한국어 읽기2~5』,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0), 『연세한국어 읽기 3~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0), 『연세한국어1-1~6-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9),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 1-1~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참고문헌]

- 김대행(2000),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지도자 과정.
김보경(2002),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해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317-326.
김지연(2001), 「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 —발화의 내적 조건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9-109.
김해옥(2012), 「문학 정전을 통한 한국 문화 및 한국학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관점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1-114.
민현식(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외국어교육)』 10(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29-452.
백봉자(2007), 「한국 문화 교수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고려대학교

교 한국어문화센터.

- 백장미(2009),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텍스트 연구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과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신주철(2003), 「한국 시 교육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고급과정의 경우」,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9-129.
- 오세인(2004), 「시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정치·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0-135.
- 오지혜·윤여탁(2010),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551-589.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39-256.
- 윤여탁(2002),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39-64.
- 윤여탁(2003ㄱ),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52.
- 윤여탁(2003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511-533.
- 윤여탁(2006), 「한국어 문학 교수 —학습 방법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23-144.
- 윤여탁(2006), 「국내의 한국어문학 교육」,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윤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성(2009), 「한국문학교육을 위한 텍스트 활성화 방법 연구 —고급반 “시” 수업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83-312.
-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7-271.
- 이수영(2003), 「시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

- 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3-237.
- 조항록(2005),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 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9-305.
- 최은영(2005), 「수필을 활용한 한국 정신문화 교육방안 연구 —재미동포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 『이화어문논집』 16, 이화어문학회, 213-234.
-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409-434.
- 황인교(2006),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심재휘

이 글은 한국어교육에 활용되는 문학텍스트에 관한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우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이 개발되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이유도 의사소통 능력, 즉 언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학텍스트는 텍스트의 특성상 단순히 언어교육의 자료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할 때, 언어교육 외에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특히 중급과 고급반에서는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의 비중이 커지므로 올바른 문학텍스트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문학텍스트의 의미를 우선 파악하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는 모국어 교육자들의 그것과는 위상이 다르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능률적으로 가르치는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문학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텍스트 선정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언어교육의 효율적인 자료로 충분한가. 이는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한국문화의 다양한 특징을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여야 한다. 셋째, 한국문학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재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국문학은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한국문학일 수 있으므로 한국문학의 특성을 전달하는 재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월성을 높이는 자료이어야 한다 등이다. 또한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은 매 단계마다 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의 제시와 더불어 한국어교육 교재에 수록된 문학텍스트 수록 양상을 분석하였다. 고대, 이대, 연대 등의 교육기간에서 발간하고 활용하는 교재를 검토하여 그 안에 수록된 문학텍스트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구 교재와 현행 교재를 비교하여 문학텍스트에 대한 교육 당국의 인식변화 및 그 결과를 파악하였다. 문화 및 문학교육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학텍스트, 언어교육, 문화교육, 문학교육

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iterary Text

Shim Jaehui

This study tries to look into the literary text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Undoubtedly, the first reason for trying to make use of the literary text is to raise up the communication skill of Korean language. But, the literary text has another aspect of education as a teaching material. It includes culture education and literature education. So, we hav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literary text and the standard of selection text.

The literary text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has a different status from the literary text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native language. It works not only a text of language education but also some special text of education including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Because of these reasons, a working process of setting a standard of selection text is very important.

In conclusion, I try to suggest some standard of selection text on this study. First, it has to be considered that literary text is distributed throughout all of level. A prose like a traditional tale is more suitable on lower level. Reaching a higher level, it is desirable that portion of a poetry and a modern literature is getting grower. And more important one to think about is that the text represents Korean literature or not. So, the level of a student, the genres of literature, the time of writing text, and the representative quality are mostly considered when select a literary text.

KEYWORDS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Literary text, Language education, Culture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별첨>

■ 고려대학교 교재

표 1. 고려대학교 『한국어』(2004)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

교재명	단계	장르	작품명	작가명
한국어2	초급	설화	곰이 뭐라고 했어?	
한국어3	중급	설화	단군신화	
한국어4	중급	설화	검정소와 누렁소(가칭)	

표 2.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2010)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

교재명	단계	장르	작품명	작가명
『재미있는 한국어』	5	시	진달래꽃	김소월
			서시	윤동주
			꽃	김춘수
			승무	조지훈
	6	수필	나무	이양하
		소설	봄 봄	김유정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김애란

■ 연세대학교 교재

표 3. 연세대학교 『한국어』(1994)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

교재명	단계	장르	작품명	작가명
한국어6	고급	시	고향의 봄	이원수
		시	가고파	이은상
		시	향수	정지용
		고소설	춘향이의 사랑	
		시조	오우가	윤선도
		시	진달래 꽃	김소월
		시	먼 훗날	김소월

표 4. 연세대학교 『한국어 읽기』(1999)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

교재명	단계	문학장르	작품명	작가명
한국어 읽기 2급	초급	설화	거울	
		설화	동물들의 나이 자랑	
		설화	소가 된 사람	
		설화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고소설	심청이	
한국어 읽기 3급	중급	희곡	흥부전	
		소설	세종대왕	
한국어 읽기 4급	중급	신화	단군신화	
		시조	한 손에 막대 잡고	우탁
		시조	방 안에 혀는 촛불	이개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	황진이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양사언
		시조	짚방석 내지 마라	한호
한국어 읽기 5급	고급	현대소설	사랑하는 나의 연사들1	고원정
		수필	인연	피천득
		수필	봄	피천득
		기행문	이 땅의 한 끝	김명렬
		기행문	작고 작은 이 세상에서	이원복
		평론	푸르다-편견 없는 문화를 위하여	이어령
		설화	은혜 깊은 호랑이(가칭)	
		설화	효성 깊은 며느리(가칭)	
		설화	호환극복 설화(가칭)	
		설화	토끼의 재판(가칭)	
		설화	호랑이로 변한 효자(가칭)	
한국어 읽기 6급	고급	설화	호산설화(가칭)	
		시	알 수 없어요	한용운
		시	가는 길	김소월
		시	추천사-춘향의 말1	서정주
		시	풀	김수영
		시	겨울바다	김남조
		수필	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정호승
		수필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박완서
		현대소설	서편제	이청준
		현대소설	매잡이	이청준

표 5.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읽기』(2010)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

교재명	단계	장르	작품	작가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읽기』	3	소설	노란 손수건	번역(작가미 상)
		수필	노벨 이야기	
			수집광 가족	
			이사 떡	
			우리 동네 슈퍼 이야기	
			아버지	
		설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4	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지구의 근황	함민복
			우리말 사랑1	서정홍
		수필	향기 나는 여자, 느낌이 좋은 남자	
			내 고향 서울	
			마음에는 형태가 있다	
			일한다는 것	
			알뜰족	
			핸드폰 때문에 생긴 일	
	5	시	국화 옆에서	서정주
			귀천	천상병
			즐거운 편지	황동규
		소설	풍선을 샀어	조경란
		수필	사전을 찾아가며 읽는 즐거움	이순원
			정독의 시간	허성란
			머피의 법칙	정재승
			누구든 천재처럼 될 수 있다	이인식
			동주형의 추억	문익환
			가슴은 한국에, 시아는 세계에	반기문
		노랫말	광화문 연가	이영훈
			거위의 꿈	이적
	6	시	자화상	윤동주
			이 시대의 죽음 또는 우화	오규원
			남해 금산	이성복
			산유화	김소월
			다람쥐를 위하여	정현종

		소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김영하
		노랫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거꾸로 강을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공지영 강산애

■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표 6.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1999)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

교재명	단계	장르	작품명	작가
말이 트이는 한국어3	중급	설화	흑부리 영감이야기	
말이 트이는 한국어4	중급	설화	형님먼저 아우먼저	
		고소설	열녀 춘향	
		설화	놀부 심보	
		설화	온달 콤플렉스	
		설화	효성 다한 호랑이	
		설화	효녀 심청	
		설화	팔쥐 엄마	
			한석봉과 어머니	
		설화	금도끼 은도끼	
		설화	도깨비 방망이	
말이 트이는 한국어5	고급	현대시	꽃	김춘수
		현대수필	인연	피천득

표 7.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2010)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

교재명	단계	장르	작품	작가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한 국어』	1-1, 1-2	시	개구리	한하운
			일요일 행진곡	김기림
			섬	정현종
			오륙도	이은상
			고백	고정희

	2-1, 2-2	민요	아리랑	
			사랑가(판소리)	
		동화	소금이 나오는 맷돌	
			호랑이와 곶감	
			청개구리	
	3-1, 3-2	시	나비	이준관
			어머니	한하운
			선물	피천득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자전거	김종길
			은행잎 편지	김한룡
		수필	얼굴	조경희
			토끼와 거북이	
		동화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	
			달걀 열두 개로 한 축하	
			흥부와 놀부	
			딸을 위한 시	마종하
	4	시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형종
			꽃	김춘수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소설	소나기	황순원
		수필	소리 없는 소리	법정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득
			관찰아	장연희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폭포와 분수	이어령
		극본	시집 가는 날	오영진
		시	저녁에	김광섭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켜 수 있다면	장정일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천상병
			칼국수	문인수
			설날 아침에	김종길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십년을 경영하여(시조)	송순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수필	왕후의 밥, 걸인의 찬	김소운
	5	시	귀천	천상병
			내마음은	김동명
		수필	‘마음’과 ‘사랑’처럼	
	6	소설	아홉 살 인생	위기철